

“지금이야 가장 쌀 때”... 코스피 7500 앞두고 빚투 35조 돌파

대출이 떠받친 랠리

마통 잔액 3년4개월 만에 최대
요구불예금 줄며 머니무브 조짐
60대 이상 신용용자 증가율 최고
VKOSPI 60선 넘나들며 불안 고조
대차거래 잔고 급증에 과열 경고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은행 예금·대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머니무브’와 급락 후 반등한 주식시장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오를 거예요. 반도체를 믿어요.” 20년 동안 반도체 한 우물을 판 15억 원어치 모아온 자영업자 김모(70)씨 얘기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1억원 어치 추가로 샀다. 김씨는 “증시 조정기에도 주가는 덜 떨어지고 꾸준하게 이익도 나니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 가장 쌀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가 투자한 삼성전자의 덩치는 1600조원대로 불어났다.

자산가뿐이 아니다. 올해 동학개미(개인투자자)도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코스피더 7500선에 바짝다가

서며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곳곳에선 과열 경고등도 함께 켜졌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급등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 집계 결과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5조5072억원이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돈을 말한다. 올해 들어서만 8조2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과도하게 늘어난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대표적인 시장 과열 신호다. 증시가 추락하면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뭇잎을 확대하는 요인도 된다.

빚투 증가세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지만 고령층일수록 확대 폭이 컸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NH·KB·삼성 등 국내 5대 증권사 기준 지난해 10월~올해 3월 60대 이상의 신용용자 잔고 증가율은 33.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9.1%), 40대(28%), 20대(15.2%), 30대(14.3%) 순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

로 불어났다.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4월 말(39조7877억원) 이후 불과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불어났다. 이 같은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3년 1월 말(40조5395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5월 들어 3영업일 간의 통계지만, 증가 폭(+7152억원)은 월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8726억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요구불예금도 계속 줄고 있다. 5대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696조511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513억원 감소했다. 지난 4월에도 3조3557억원 줄었다. 이는 은행권 자금 일부가 증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지난 8일 60.53을 찍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5일 장중 83.58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가 7000선을 단숨에 뛰어넘자 다시 60선을 넘나들고 있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30일간 증시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한다. 통상 20~30 수준을 안정 구간,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증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상승장 속에서도 시장 체력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8일 기준 178조16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1809조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110조9229억원) 대비 62.8%, 3월 말(133조5739억원) 대비 35.2% 급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증시는 뛰는데 생계는 벼랑... 카드론 43조 ‘역대 최대’

서민경제 경고음

내수·자영업 부진에 온기 확산 제한
생활비 부담 커지며 개인파산 늘어
먹거리 물가 상승에 서민 체감 악화
원가 부담 커져도 가격 전가 어려워

증시와 현실 경제의 괴리가 심화된 배경에는 코스피 상승세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내수 중심 업종과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시상승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1.4%로 뒤를 이었다. 물가와 이자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서 개인 채무자가 버틸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 늘어나는 생계형 대출

회사원인 이모씨(37)는 최근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월급만으로는 치솟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단기 대출이었지만,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러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7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이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민의 가장 큰 부담은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채감물가 상승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올랐다.

특히 서민의 채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물가지

수 품목 가운데 쌀 가격은 같은 기간 17.7% 상승했고, 돼지고기와 달걀 가격도 각각 7.3%, 6.7% 올랐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들은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드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원가 부담에 흔들리는 자영업

온라인 생활용품 판매업을 하던 김모씨(41)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매출을 믿고 사업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경기 둔화

와 소비 침체가 이어지며 재고 부담이 커졌고, 광고비와 물류비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됐다. 결국 월 수입 대부분을 이자 상황에 쓰게 된 김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1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수부진 장기화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월 1.9% ▲2월 2.5% ▲3월 4.1%를 나타냈다.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 확대에도 소비 침체로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발자국마다 심이 되는 섬!

울릉도의 여행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속을 직접 걷는 경험입니다.

울릉도 사투리 | 오기둥이여 안녕